

뉴스홈 | **최신기사**

<PSI참여>정부 `속전속결' 배경은

송고시간 I 2009-05-26 11:51











기자페이지

<PSI참여> 정부 `속전속결' 배경은핵실험으로 당위성 부각..대북규탄 최고조시점 택해

(서울=연합뉴스) 조준형 기자 =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인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(PSI) 전면 참여를 발표한 것은 `때'를 놓쳐 정책혼선을 야기했던 지난달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때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되다

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 발사 계획을 밝히고 관련 준비를 할 때부터 `로켓 발사 후 PSI전면 참여' 방침을 정했다.



그러나 북한이 선제적으로 3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(조평통)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`선전포고'로 간주, "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"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면 서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.

결국 4월5일 로켓 발사 직후 전면 참여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여 러 고려 속에 뒤로 밀리면서 일은 더 복잡해졌다.

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PSI전면 참여가 별다 른 실익없이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힘 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.

정부 안에서도 `PSI전면 참여 필요성은 인정하나 3월 한미합동 군사훈련때 있었던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으로 남북관계가 긴장 된 이때 전면 참여를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.

여기에는 로켓 발사를 북측 주장대로 인공위성 발사로 볼 것이냐,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볼 것이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석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일부 작용했다.

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조치는 신속했다. 핵실험 발사 직후 국제사회에서 대북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시점 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PSI전면 참여를 발표한 것이다.

이런 신속한 대응에는 이번 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대표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집념을 여과없이 드 러냄에 따라 PSI 참여의 당위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우선 작용했다.

또 지난달 로켓 발사때만 해도 `장거리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'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이견의 여지가 있 었지만 핵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.

그리고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방침을 공포한 상황에서 또 시기를 미루다가 북핵 관련 협상 국면이 조성될 경우 '참여 연 기론'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여기에 더해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상황인식이 확산되 면서 `PSI참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논리'가 힘을 잃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.

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



	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9/05/26 11:51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		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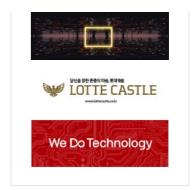
현장 영상 →

▶ 01:18 ▶ 02:22

[영상] 입-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

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에디터스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...美와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□ 144 찰에 고발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⊕ 66 안 맞아"(종합)

3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☐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⊕ 40 힐 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.톱뉴스사설 이시각.헤드라인 **광고** KTX.열차 AREX.공항철도 모바일 P.C.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뉴스
 모바일앱
 모바일앱
 보도사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Yonhapne